

‘산타’ 된 호랑이들 1박 2일 사랑 나눔



일일호프



‘사랑의 쌀’ 배달 중인 윤석민(왼쪽)과 박준표

KIA 선수단, 임동 기초수급 가정에 쌀·난방용품·학용품 전달 김주찬·최형우 등 주축선수 참가 팬사인회...주민들과 기념 촬영 ‘투병’ 차영화 코치 돕기 일일호프...사인볼 판매·자선경매 진행

KIA 타이거즈가 ‘1박 2일’의 사랑 나눔 시간을 가졌다.

일본 오키나와,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함평 챔피언스 필드 등 각기 다른 장소에서 11월을 보냈던 KIA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12월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갖고 지역민 사랑을 실천했고, 늦은 오후에는 ‘차영화 코치 돕기 일일호프’를 갖고 병상에 있는 차영화 코치를 위해 정성을 모았다.

추위에도 늦은 시간까지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KIA 선수단은 예정된 마감 시간보다 1시간 연장된 2일 오전 1시까지 일일호프를 진행했다.

오전 9시에 챔피언스필드에 모여 하루를 열었던 선수들은 납회식에 이어 일일호프까지 ‘1박 2일’ 동안 함께하며 마음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KIA 선수단은 ‘사랑의 쌀 나누기’를 통해 챔피언스필드 인근 임동 기초수급 가정에 쌀 4600kg과 전기 매트 230개를 전달했다.

‘사랑의 쌀’은 구단이 올 시즌 운영한 물품 보관함과 수익금에 자체 예산을 추가해 마련했다. 구단 상품 업체인 케이엔코리아로부터 모자와 학용품 등 400만 원 상당의 물품도 후원받았다.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와 주민 들을 위한 팬 사인회도 열었다. 김주찬, 최형우, 김선빈, 임기준, 김윤동, 임기영, 최원준은 임동주민센터 2층에서 열린 사인회에 참가, 기념 촬영도 하고 어린이들에게 모자와 학용품을 선물했다.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이후 챔피언스필드 구내식당에서 선수단 납회식을 진행한 KIA 선수단은 오후에는 장소를 옮겨 사랑 나눔을 이어갔다.

KIA타이거즈 구단과 선수단 상조회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광주 동구 황금동 파레스관광호텔 1층 ‘나인로드피제리아 광주점’에서 ‘차영화 코치 돕기 일일호프’를 열었다.

유니폼을 입고 직접 서빙에 나선 선수들은 사인볼 등 기념품 판매에도 나섰다.

자선 경매도 진행됐다. 나지완의 건강 목걸이 세트와 안치홍의 배트 등이 100만원에 낙찰되는 등 행사장을 찾은 팬들도 좋은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앞서 오후 3시에는 양현중, 나지완, 김선빈, 안치홍, 임기영, 김윤동이 롯데백화점 광주점 9층 행사장에서 사인회를 열고, 수익금을 전액 기부했다.

선수단 상조회장 김주찬은 “한 시즌 동안 지역민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쌀 나누기 행사를 펼쳤다”면서 “비록 큰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지만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늦은 시간까지 많은 팬이 기다리고 계셔서 일일호프 시간을 연장해서 진행했다. 많은 분이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선수들의 나눔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늦은 시간까지 일일호프를 진행한 김선빈, 김윤동, 김민식, 유민상은 2일 일찍 전주로 향했다.

최형우의 모교인 전주 전북초에서 진행된 ‘2018 KIA타이거즈 최형우와 함께하는 베이스볼 캠프’를 위해 결연을 한 KIA 선수들은 호남 지역 초등학교 선수들에게 야구 기본기와 기술을 가르쳐 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글·사진=김여미 기자 wool@kwangju.co.kr



임기영 자선 경매



사인중인 이범호



류현진 내년 FA ‘톱 30’

ESPN 전망...“트레이드 가능성 낮아”

클리퍼링 오퍼를 받아들이며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 남은 류현진(31)은 1년 뒤 다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미국 ESPN은 2일 벌써 2019년 메이저리그 FA 랭킹을 정했다. 자신들도 “너무 이른 평가”라고 했지만 “올해 FA 시장이 더디게 움직이는 건, 내년 FA와도 무관하지 않다”며 의견을 설명했다.

ESPN은 류현진을 2019년 FA 중 30위로 꼽았다. 투수 중에서는 12위다.

ESPN은 “류현진이 2018년 평균자책점 1.97을 기록한 건, 행운 덕일 수도 있다. 그러나 조정 평균자책점(FIP)이 3.00으로 좋아진 것과 삼진 비율이 개인 최다(9이닝당 9.73개)였던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류현진은 좌완 투수임에도 좌타자보다 우타자에게 강한 투수로 개인 통산 평균자책점은 3.20이다.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류현진은 좋은 투수다”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이 매체는 “류현진의 트레이드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다.

류현진은 지난해부터 자주 ‘트레이드 대상자’로 꼽혔다. 그러나 2019년에는 ‘고액 연봉자(1천790만 달러)’ 대우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마운드를 지킬 수 있다.

‘전쟁’은 시즌 후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류현진은 원소속구단이 FA 선수에게 1년 계약을 제안하는 제도인 클리퍼링 오퍼를 받아들였다. 1년 뒤에는 FA 협상에 나서야 한다.

ESPN은 콜로라도 로키스 3루수 놀런 아레나도를 2019년 FA 1위로 꼽았다.

휴스턴 애스트로스 우완 선발 게릿 콜은 전체 2위, 투수 1위를 차지했다.

좌완 선발 크리스 셰일, 내야수 산드르 보하르츠(이상 보스턴 레드삭스)가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체면 구긴 타이거

우즈, 재단 주최 골프대회 최하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자신의 이름을 건 ‘타이거 우즈 재단’이 주최하는 대회 셋째 날 최하위로 내려갔다.

우즈는 2일 바하마 뉴프로비던스섬의 올버니 골프 클럽(파72·7267야드)에서 열린 히어로 월드 챔피언스(총상금 350만 달러) 3라운드에서 버디 5개를 잡았지만, 보기 3개와 더블보기 1개에 발목을 잡혀 이븐파 72타를 적어냈다.

중간합계 2언더파 214타를 기록한 우즈는 2라운드 공동 14위에서 4계단 하락, 최하위인 18위로 내려갔다.

우즈는 1라운드에서는 공동 16위에 그치는 등 이번 대회 내내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즈는 2번홀(파3)에서 보기, 3번홀(파5)에서 더블보기를 치며 흔들렸지만, 6번홀(파5)과 9번홀(파5)에서 버디를 땀으며 만회했다.

후반에서도 11번홀(파5)에서 버디를 추가했다. 12번홀(파3)과 14번홀(파4)에서 다시 보기를 쳤지만, 15번홀(파5)과 17번홀(파3)에서 다시 버디를 잡아 타수를 회복했다.

우즈는 1라운드 후 발목 통증과 감기 증세를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타이거 우즈 재단 주최로 4대 메이저 대회 우승자, 세계랭킹 상위 선수, 디펜딩 챔피언, 스폰서 초청 선수 등 18명만 모여 경쟁하는 이 대회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정규 대회는 아니지만, 세계랭킹 포인트가 걸려 있다.

토니 피나우(미국), 온 람(스페인), 헨리크 스텐손(스웨덴)이 나란히 중간합계 13언더파 203타로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女 피겨·테니스 ‘기대되네’

유영, 탈린 트로피 주니어 여자싱글 우승

한국 피겨 스케이팅 기대주 유영(과천중)이 탈린 트로피 2018 주니어 여자싱글에서 우승했다.

유영은 1일(한국시간)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대회 여자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60.63점에 예술점수(PCS) 53.57점, 합계 1을 합쳐 113.50점을 받았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50.17점을 받은 유영은 총점 163.67점으로 출전선수 22명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로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우승은 했지만 점프 실수가 아쉬웠다.

첫 과제인 트리플 악셀(공중 3회전반)에서 회전수 부족판정을 받아 기본점 6.0점에서 수행 점수를 3점이나 깎인 유영은 이어진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기본점 10.10점)에서 GOE를 1.57점 확보했다.

유영은 트리플 루프에서도 회전수를 채우지 못해 GOE를 1.84점 감점당했고, 더블 악셀-트



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도 회전수가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레이백 스피ンを 최고난도인 레벨4로 처리한 유영은 트리플 러츠-더블 토루프-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와 트리플 살코에서는 가산점을 챙겼지만 마지막 점프 과제인 트리플 플립에서는 어텐션(에지 사용 주의) 판정을 받아 아쉬움을 남겼다. /연합뉴스

구연우 호주오픈 테니스 주니어 여자단식 본선 진출

구연우(15·중앙여중)가 2019년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 테니스 주니어 여자단식 본선에 진출했다.

주니어 세계랭킹 149위인 구연우는 지난 1일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서 열린 2019 호주오픈 테니스 아시아 퍼시픽 와일드카드 플레이오프 주니어 여자단식 결승에서 사오정화(주니어 166위·중국)를 2-1(6-3 3-6 6-2)로 제압했다.

키 170cm가 넘는 좋은 신체 조건에 공격적인 스타일을 겸비한 구연우는 9월 일본 효고 국제 주니어대회, 10월 대만 그린맥스컵 주니어대회 등에서 우승한 유망주다.

9월 일본 대회 우승 전까지 주니어 세계랭킹이 500위권이었으나 일본과 대만 두 대회를 연달아 제패하며 150위 안쪽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한국 선수가 메이저 대회 주니어 여자단식 본

선에 나간 최근 사례로는 2012년 장수정(23)과 이소라(24), 지난해 이은혜(18), 올해 박소현(16) 등이 호주오픈에 출전할 바 있다.

이번 아시아 퍼시픽 와일드카드 플레이오프 대회 주니어 여자단식에는 모두 9명이 출전했으며 중국 선수 8명과 경쟁을 이겨낸 구연우가 우승자에게 주는 호주오픈 본선행 티켓의 주인공이 됐다.

구연우는 “8강부터 결승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우승해 너무 기쁘다. 3세트까지 가게 돼 부담됐지만, 초반에 리드를 잡아 자신감을 갖고 경기할 수 있었다”며 “이번 대회에 계속 컨디션이 좋았는데 내년 호주오픈에서도 좋은 경기를 하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호주오픈 테니스대회는 1월 14일 호주 멜버른에서 막을 올린다. /연합뉴스